



AIR Trends In Perspective

2019년 9월 30일(제15호)

T.M.I(Too Much Interference) 서핑은 서퍼에게

Points

정부의 주도로 인위적으로 서핑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닌 민간의 주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핑문화가 성장한 점이 국내 서핑의 핵심

- 서핑을 포함한 해양스포츠의 확산기점을 1인당 국민 총소득(GNI)이 3만달러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확산의 요건이 갖춰짐
- 2014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이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서핑인구 또한 2014년도부터 매년 급격하게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 현상이 나타남
- 서핑붐으로 인해 서핑과 연계한 축제, 광고홍보, 용품시장 등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의 관광수익이 창출되고 인구구조 및 지역이미지 변화
-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서핑문화와 연계된 놀이문화가 지역의 관광수요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국내 서핑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

새로운 서핑 산업과 사천, 금진해변 등 기존지역의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생 발전 방향 요구

- 동해안은 서핑에 적절한 수온, 넓은 바다 면적과 ‘만’ 형태의 해안선 구조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서핑 산업 발달에 적합
- 강릉의 금진해변, 사천해변 역시 최근 서핑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, 금진해변의 경우 서핑특화해변으로 이용 계획
- 서핑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핑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어 인위적으로 서핑 스팟을 유도할 경우 서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모순을 불러올 수 있음
- 강릉 서핑 해변 주변으로 서핑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유입됨에 따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

강릉시가 해양테저스포츠 대표도시가 되기 위한 핵심은 샤워시설, 서핑보드 보관시설 등 인프라의 배후지원과 자연스러운 서퍼주도 문화 형성

- One beach - One sports 전략의 일환으로 형성된 서핑 관련 인프라를 통해 서핑산업이 장기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
- 조성된 서핑 편의 시설 확충이 단기간 스포츠 열풍을 위함이 아닌 서퍼와 시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생활 활성화를 유지하는 장기적인 해양테저스포츠 도시 조성 목표
- 강릉시의 지나친 개입이 있을 시 서핑산업이 미래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낭비가 우려되며 서퍼들의 고유문화를 훼손할 수 있음
- 지자체는 순조롭게 발전하는 서핑문화에 대해 정부주도형 사업이 아닌 서퍼 주도형 서핑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와 서퍼 편의시설만을 지원할 것
- 민간이 주도하는 자연스러운 서핑문화가 완전히 확립된다면 강릉시만의 특색있는 서핑명소가 되어 열정 가득한 해양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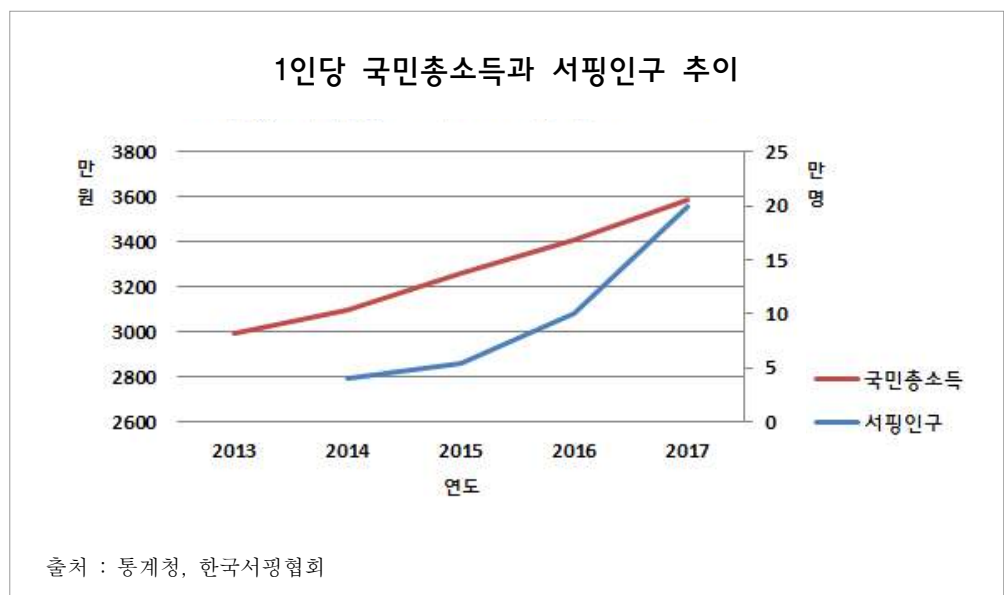
“네가 스스로 서퍼가 돼서,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단서가 나올 거야.”

- 영화 폭풍속으로 중-

정부의 주도로 인위적으로 서핑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닌 민간의 주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핑문화가 성장한 점이 국내 서핑의 핵심

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이란 명목 GNI를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 구하며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지표
-통계청-

- 소득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서핑에 대한 참여와 관심
 - 서핑은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레포츠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 시장에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음
 - 서핑을 포함한 해양스포츠의 확산기점을 1인당 국민 총소득(GNI)이 3만달러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확산의 요건이 갖춰짐
 - 2014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이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서핑인구 또한 2014년도부터 매년 급격하게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 현상이 나타남
 -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서핑이 첫 정식종목으로 지정돼 서핑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기 레포츠가 될 가능성이 있음
- Top-down방식(정부주도형)이 아닌 Bottom-up방식(민간주도형)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자리 잡은 우리나라 서핑 문화
 - 우리나라 서핑은 1990년대에 대중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1995년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에서 첫 서핑 클럽이 탄생하였고 젊은 층의 클럽·게스트 하우스 문화, 여성 이용객증가 등으로 서핑 인기 급상승
 - 정부의 주도로 인위적으로 서핑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닌 민간의 주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핑문화가 성장한 점이 국내 서핑의 핵심
 -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서핑문화와 연계된 놀이문화가 지역의 관광수요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국내 서핑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
 - 서핑붐으로 인해 서핑과 연계한 축제, 광고홍보, 용품시장 등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의 관광수익이 창출되고 인구구조 및 지역이미지 변화



새로운 서핑 산업과 사천, 금진해변 등 기존지역의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생 발전 방향 요구

- 청정해변을 바탕으로 서핑의 명소가 되어 서핑도시로 새롭게 발돋움 중인 강릉
 - 동해안은 서핑에 적절한 수온과 넓은 바다 면적, ‘만’ 형태의 해안선 구조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서핑 산업 발달에 적합
 -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며 서울-강릉 KTX와 서울-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교통이 용이해져 접근성이 향상
 - 강릉과 인접한 양양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서핑지로 자리 잡아 매년 수만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서핑문화 트렌드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음
 - 강릉의 금진해변, 사천해변 역시 최근 서핑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, 금진해변의 경우 서핑 활성화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서핑 산업 확대 도모
 - 주문진의 서핑 페스티벌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포토존 ‘청시행’ 같은 젊은 층을 공략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젊은 느낌의 관광지 형성
- 빠르게 성장하는 서핑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
 - 서핑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핑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어 인위적으로 서핑 스팟을 유도할 경우 서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모순을 불러올 수 있음
 - 강릉 서핑 해변 주변으로 서핑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
 - 빠르게 증가하는 서핑인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,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강릉의 서핑해변으로써 만족도 하락의 위험이 있음
 - 서핑해변으로의 변화와 개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의 고유한 느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생 발전 방향 요구

‘젠트리피케이션’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킴
-네이버 지식백과-



▲ 강릉 서핑 및 해양레저스포츠 해변
(출처 : 솔향강릉)

▲ 강릉 금진 해변 포스터
(출처: 솔향강릉 블로그)

강릉시가 해양레저스포츠 대표도시가 되기 위한 핵심은 사위시설, 서핑보드 보관시설 등 인프라의 배후지원과 자연스러운 서퍼주도 문화 형성

- One beach - One sports 전략의 일환으로 형성된 서핑 관련 인프라를 통해 서핑산업이 장기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 필요
 - 강릉시 해양레저스포츠 도시 조성으로 펼친 One beach - One sports 전략에 따라 소돌, 사천, 사근진, 경포, 송정, 금진해변은 해양레저스포츠 특화 해변으로 변화
 - 금진 해변은 서핑특화해변으로 이용하기 적합하도록 기존에 있던 군사시설 이전 추진, 백사장 평탄화 및 서핑샵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 진행
 - 조성된 서핑 편의 시설이 단기간 스포츠 열풍을 위함이 아닌 향후 서퍼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기적인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해야 함
- 서핑문화는 서퍼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된 문화이므로 서핑산업의 발전과 시장 확장을 위해 지자체의 지나친 개입 시 기존 서핑 문화의 고유 의미 상실이 우려됨
 - 많은 이들이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서핑을 찾아 즐기는 것이 인기가 있으며 서핑을 목적으로 여행을 오는 서핑트립을 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
 - 강릉시의 지나친 개입이 있을 시 서핑산업이 미래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낭비가 우려되며 서퍼들의 고유문화를 훼손할 수 있음
 - 서퍼가 주도하는 자연스러운 서핑문화가 완전히 확립된다면 강릉시만의 특색 있는 서핑명소가 되어 열정 가득한 해양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

서퍼들에게 물어봤습니다



서핑도시 강릉이 되기 위해



공용화장실이
여름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닫혀있거나
단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
-정다빈-

사천해변이 죽도해변과 같이
변했으면 좋겠고
서핑보드 보관 시설이
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
-김동현-

사천해변과 죽도해변은
안전요원이 없어서 서퍼들이 기본적으로
수영실력이 있다하지만 불편합니다
-김한술-

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
금진해변 등 서핑장소까지
교통편이 너무 불편하고
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
-윤여빈-

서핑보드 대여점에서
서핑교육도 함께 해주는데
안전에 대한 교육은 미비해서
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어렵습니다
-윤태영-



발행	국립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리서치팀 에어(AIR)
참여집필진	문준영 유희하 정혜빈 정혜린
주소	강릉시 죽현길 7 도시계획부동산학과
인스타그램	@gwnu_air
자료문의	gwnu_air@naver.com
AIR TIP은 대학생의 시각에서 강릉시의 동향과 이슈를 바라본 정복 자료입니다.	